

매서운 경제 한파 ... 설 민심 싸늘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난방비 폭탄까지... "살기가 팍팍하다"
소값·쌀값 폭락 농촌경제도 어려워 '경제난 대책' 마련해야
尹 정부 불안한 국정운영 우려 목소리... "민주당, 제대로 일 하라"

설 연휴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공통 화두는 '경제'였다. 고물가로 인해 갈수록 팍팍해지는 민생과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 소값과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운 농촌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한 반감은 컸고, 서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지역 정치권을 향해 민생 안정대책 마련과 정치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등이 설 명절 연휴 기간(1월21일~24일) 동안 귀성객 환영인사와 복지 시설 방문 등 민심 탐방을 한 결과 한결 같이 '살기가 팍팍하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호소였다.

유례없는 고금리에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서민 살림과 직결되는 난방비(도시가스비)와 전기세 등이 급등한데다 앞으로 생활 요금 등이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기간 민심 탐방 결과 서민들은 고물가와 난방비 폭탄에 대한 걱정이 컸다'면서 "풍성하고 넉넉해야 할 설 분위기가 물가와 난방비 우려로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고충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 보다 어쩔 수 없다는 태도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부 장모(54)씨는 "이번 설에는 밀가루와 각종 야채값 등 설 제수용품 가격도 크게 올라 장보기가 머뭇거리겠다"면서 "장바구니 불가도 불가지만, 고금리 속에 전기요금과 난방비까지 오르면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고 토로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경제난 대책 마련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소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야의 정쟁과 대립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비난과 함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의원은 "물가 인상, 난방비 폭탄 등으로 서민 경제가 크게 위협받는 만큼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컸지만, 무엇보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정권을 뺐기만 제대로 일 좀 하라는 쓴소리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형석(광주 북구) 의원은 "서민경제가 매우 힘든 만큼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커질수록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더 커지는 것 같다"면서 "지역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하는 지역민들도 상당수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운영덕 의원(광주 동남)은 "가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삶이 전 없이 힘든 만큼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야당 탄압에 맞서 정치개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광주 출신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은 "거대 야당이 민생은 돌보지 않은 채 여당은 당권 경쟁에만 몰두해 있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떠나 정쟁에만 몰두해 있는 데 대해 서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노동자 탄압을 보면서, 서민들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여 불안함을 호소한다"며 "여야와 정부를 보면서 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다"고 진단했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에서는 소값과 쌀값 하락 등 피폐한 농촌 경제를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농자재값과 축산 농가의 사료가격이 올라가고 소비가 둔화하면서 소값도 하락하고 있다"며 "유가까지 인상되다 보니 농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눈발 헤치고... 힘겨운 귀경길
광주와 전남지역에 대설특보가 발령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명절을 지내고 서울로 올라가려는 귀경객들이 눈발을 헤치고 광주 송정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 ... 대중교통·병원 '예외' 영하 12도 '최강 한파'

코로나 광주·전남 1000명 미만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공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예외 장소도 있는 만큼 잘 숙지해야 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30일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더는 법적 의무가 아니게 되며,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는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 모두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장소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감염취약

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다.

한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262명이 발생하는 데 그쳤다. 특히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6월 28일(9889명) 이후 30주 만에 가장 적다는 점에서 감소가 뚜렷해 졌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도 이날 각각 300명, 451명 등 751명이 신규 확진돼 전남(684명)에 이어 이들 연속 1000명 미만을 유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출근길 교통대란·수도 동파 주의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귀경길을 막아선 올겨울 최강한파가 26일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강한 찬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26일 오전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가량 더 떨어지는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예보했다.

24일부터 광주·전남에 내린 눈은 25일 오전까지 이어져 최대 25cm까지 쌓이는 곳이 있고, 강한 바람을 동반한 한파가 이어져 출근길 교통대란과 수도동파를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광주지역과 전남 일부 지역(담양, 곡성, 구례, 화순)에 발효된 한파경보는 26일 오전에야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광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했고 전남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하 1도 수준으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전남 대설 강풍 풍랑 특보에 '초비상' >6면

나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 35.1% 그쳐 >8면

광주FC 산도로 "새 역사 만들겠다" >18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계묘년 새해,
지방시대가 열립니다.

지방이 앞서고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2023